

일자리 부족한 광주·전남, 영세·고령 자영업자 증가

한은 광주·목포본부 보고서...폐업 건수 전국 평균 크게 상회 지난해 '나홀로 사장님' 크게 늘고 부채도 50% 이상씩 급증

광주와 전남지역 자영업자들이 내수 침체로 인한 경영난에 아우성이다. 장사가 안돼 문을 닫는 업체들 뿐 아니라 직원을 쓰기 힘들어 홀로 영업하는 자영업자,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기 힘들어 폐업하지도 못한 채 버티고 있는 '졸비'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은데다, '일할 데가 없으니 장사나 해야겠다'며 나섰다 실패하는 사례도 많아 대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경영여건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자영업자의 폐

업공제금 수령 건 수는 3010건으로, 지난 2019년(1880건) 대비 60.5%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6개 광역시의 평균 증가율(45.7%)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전남지역 폐업공제금 수령 건 수 역시 지난 2019년 1380건에서 지난해 2980건으로 115.4% 증가했다. 지난해 전남 자영업자들의 폐업공제금 수령 건 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56.0%)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자영업자의 폐업 건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지역의 자영업자들의 폐업 비중이 높은

데도 지역 내 자영업자 수는 끝없이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기준 14만 8000명, 전남은 30만 8000명으로 조사됐다. 광주와 전남 모두 자영업자 수가 지난 2019년 대비 각각 2.1%, 10.0% 증가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역 내 자영업자 증가의 이유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은퇴한 고령층의 생계형 창업 등을 꼽았다.

지역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 광주시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기준 26.6%로 광역시 평균(28.5%)을 하회했지만, 전남은 52.7%로 전국 도지역 평균(38.2%)을 크게 상회했다.

또 지역 내 '나홀로 자영업' 비중도 늘어나는 등 자영업 규모가 영세화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 소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수는 10만 3000명으로, 지난 2019년(9만 7000명) 대비 6.2% 늘었다. 같은 기간 전남 역시 1인 자영업자 수가 23만 8000명에서 26만 8000명으로 12.6% 증가했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8.3%, 4.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 영세화 등으로 자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자영업 부채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대폭 증가했다.

광주시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3조원으로 지난 2019년(13조9000억원)보다 65.4% 늘었다. 같은기간 전남은 15조 2000억원에서 24조원으로 58.3% 증가했다.

지역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새마을금고, 단위농

협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광주 자영업자들의 예금은행 부채는 4조2000억원 늘었고, 비은행금융기관 부채는 4조9000억원 증가했다. 전남은 예금은행 부채가 1조 8000억원, 비은행금융기관 부채는 7조원 불어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선진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과장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지역 소비 증대, 인구 감소에 완화에 힘써야한다"며 "고령층 퇴직자들이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지 않고 임금근로자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100만원 모으면 우대금리 '도전 골든 100적금' 출시

최고 연 7.1%까지 금리 혜택

광주은행이 적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전용 상품 '도전 골든 100적금'을 내놓았다.

도전 골든 100적금은 월 적립한도 20만원 이내로 납입이 가능한 6개월제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개인 고객 1인 1계좌 한정으로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최초 가입금액은 0원으로 신규 가입되며, 추가 납입은 광주Wa뱅크 앱 예금 전용화면의 '입금하기' 버튼을 통해 가능하다.

적금 기본금리는 연 1.0%이며, 조건을 만족하면 최고 연 7.1%까지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100만원 이상 적립 후 만기해지 시 연 3.0%포인트 ▲최근 1년 동안 당행 정기예금 및 적금 계좌를 보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연 3.1%포인트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상품은 총 1만좌 한도로 선착순 판매되며,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첫 입금 시 더벤티 커피쿠폰 100% 지급 이벤트도 선보일 계획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금융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기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9월9일부터 23일까지 접수

기아가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하반기 채용 분야는 ▲구매 ▲국내생산지원 ▲생산기획 ▲재정 ▲경영지원 ▲고객경험 ▲국내사업 ▲국내생산 ▲GPO(Global Policy Office) ▲특수사업 ▲제조솔루션 ▲KASO(Korea Automotive Safety Office) ▲글로벌사업관리 ▲상품 ▲GSO(Global Strategy Office) ▲품질 등 19개다.

채용 대상자는 4년제 정규대학 학사(20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및 석사학위 소지자다. 채용

은 오는 9월9일부터 23일까지 채용 홈페이지 통해 접수가능하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아는 채용 기간 동안 구직자를 위해 오는 9월 12-14일까지 남산서울타워에서 '기아 커리어 캠프'를 개최한다.

기아 커리어 캠프는 현직자와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직무별 그룹 상담과 여성과 외국인의 경력 성장을 위한 여성 리더 및 외국인 현직자 대담회가 진행된다.

기아 커리어 캠프는 9월 3일까지 기아 커리어 캠프 신청 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포상금도 통크게...김우진·임시현 8억원씩 받았다

현대차그룹·대한양궁협회 양궁 올림픽 선수단 환영만찬

현대차그룹과 대한양궁협회는 지난 27일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맹활약한 한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단을 축하하기 위한 환영 만찬을 열었다. (사진)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한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청주시청)과 임시현(한국체대)은 포상금으로 각각 8억원을 받았다.

양궁 대표팀은 파리 올림픽에서 세계 양궁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 5개를 획득하며 전 종목을 석권했다. 여자 단체전 10연패와 남자 단체전 3연패, 혼성 단체전 2연패는 물론 남·여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땀다.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만찬에는 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 스태프, 상비군 선수, 역대 메달리스트, 전국 양궁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양궁협회



후원사인 현대차 장재훈 사장, 기아 송호성 사장 등도 함께 했다.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파리 올림픽에서 3관왕에 오른 김우진과 임시현은 각각 8억원(이하 세후 기준)을 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따낸 남수현(순천시청)은 5억원,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수확한 이우석(코오롱)은 4억5000만원, 각각 금메달 1개씩을 목에 건 전현영(인천시청)과 김제덕(예천군청)은 3억3000만원씩을 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9월 6일까지 공모

판로·전문컨설팅 등 지원

전남도가 2024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을 오는 9월 6일까지 공모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을 조기 발굴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기간(3년)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 참여와 공공기관 우선구매 자격 부여 외에도 생산제품 홍보 및 판로 지원, 기업 경영 관련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9월 6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면심사, 현장실사, 대면심사 절차를 거쳐 11월께 도·시군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군 대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이나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061-276-13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관장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해 지역경제 위기를 기업과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중소기업 "올 추석자금 평균 1770만원 부족"

47.3% "상여금 지급 계획 있어"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4곳 중 1곳의 자금 사정이 지난해 추석 때보다 악화됐으며 기업당 평균 177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5~16일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25.6%가 올해 추석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곤란하다고 답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으로 판매·매출 부진(72.2%)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원·부자재 가격 상승(33.2%), 인건비 상승(24.9%), 판매대금 회수 지연(15.1%)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추석 자금으로 평균 1억 814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자금 대비 부족 자금은 평균 177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족한 자금 확보 방안으로 기업들은 납품 대금 조기 회수(41.7%), 결제 연기(21.7%), 금융기관 차입(19.1%) 등을 꼽았다. 다만 '대책이 없다'는 답변도 23.5%였다.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7.3%로 나타났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36.7%,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기업은 16.0%로 각각 집계됐다.

정액 지급 기업은 평균 61만6000원을 상여금으로 주고, 정률 지급 기업은 기본급의 53.7%를 지급할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휴무 계획에 대해서는 85.6%의 기업이 추석 공휴일인 다음달 16~18일에만 쉬겠다고 답했다. 14.4%의 기업은 공휴일 외에 추가로 쉬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추가 휴무일은 평균 0.3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건설 근로자에 최대 300만원 긴급생계비

건설근로자공제회 무이자 대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8일부터 연말까지 긴급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한다.

정부의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한시 운영되는 이번 대부사업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가 대상이다.

자신의 적립 금액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2년으로 일사분할 상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별도의 서류 없이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이나 공제회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이날부터 건설근로자들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방문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내야했던 수수료 2000원이 면제된다.

건설 근로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규

정을 삭제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설현장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출 기준도 실제 이용 인원을 반영할 수 있게 변경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89.83 (+0.58)
▲ 코스닥	762.50 (-2.45)
▲ 금리(국고채 3년)	2.919 (-0.021)
▲ 환율(USD)	1336.00 (+5.00)

삼성전자 AI 기능 강화 양문형 냉장고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는 28일 차별화된 인공지능(AI) 기술과 사용자 맞춤 기능을 강화한 '양문형 냉장고' 신제품을 출시했다.

양문형 냉장고는 비스포크 냉장고 4도어와는 다른 2도어 냉장고로 왼쪽 냉동, 오른쪽 냉장으로 구성됐다.

신제품은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15%까지 절감할 수 있는 'AI 절약모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AI 인버터 컴프레서'를 갖춰 전기요금 걱정을 덜어준다. 연조 비스포크 냉장고 4도어에 선보인 '오 토 오픈 도어' 기능도 적용했다. 도어 센서를 가깝게 터치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삼성전자 독자 기술이다.

또 미세한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는 정온 냉장 기술을 적용해 식재료 본연의 맛 그대로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이번 양문형 냉장고 신제품 출시로 삼성전자는 AI 가전 라인업을 확대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 모델이 신제품 '양문형 냉장고'를 선보이고 있다.

GICON, 모바일게임협회와 글로벌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협약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난 27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글로벌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는 오는 10월

11~12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광주영상 복합문화관,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GICON과 한국모바일 게임협회는 컨퍼런스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와 전국 게임 개발자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컨퍼런스 브랜드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글로벌 게임 개발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게임 산업 활성화 및 게임의 순기능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